



파키스탄 팁 문화

최원용

파키스탄에선 신용카드 사용하기가 힘들다. 고국인 한국에서는 경조사 봉투 만들 일이 아니면 현금 찾을 일이 없을 정도로 신용카드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형 호텔과 일부 고급 쇼핑몰 정도만 카드를 받아주며 대부분 신용카드 단말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특하면 전기가 끊어지고, 통신이 안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니, 통신망에 의존해서 결제하는 시스템 자체를 못 믿을 수밖에 없다.

나는 관광객도 아니고, 파키스탄 내에서도 한적한 시골 지사 안에서 살고 있는 생활 반경이 매우 좁은 직장인이라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겪어 본 경험을 토대로 여기 팁 문화를 살펴보자.

파키스탄의 팁 문화는 미국과 유럽의 팁 문화와는 개념이 좀 다르다. 용어 자체가 ‘Tip(팁)’보다는 ‘Baksheesh(박시시)’라고 쓰는 것이 더 맞겠다. 박시시는 자선기부, 봉사료, 급행료, 뇌물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며,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개념이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팁’은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노동의 대가처럼 여겨지는 반면에, ‘박시시’는 가진 자

가 베푸는 자비와 종교적 권고사항의 실천에 더 가깝다. 나도 이것을 이해하는 데 한참이 걸렸다.

파키스탄은 기초 임금이 매우 낮다. 2022년도 기준 법정 최저 임금이 월 20만 원이 채 안 된다. 그만큼 물가도 싸다. 배달원이나 골프캐디 등의 서비스 요금도 쌀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나는 처음에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팁을 지급하는 기준을 이 나라 사람들의 노동가치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생각했었다. 푸드판다 등에서 규정된 정규 배달 요금은 100루피를 넘는 경우를 못 봤으며, 알파타 쇼핑몰에서 카트 배달을 요청해도 30루피면 만족해한다. 운전사 또는 청소부를 하루 종일 고용해도 1,000 루피면 충분한 수준이니, 시간당 급여도 대충 100루피 안팎이 되는 계산법. 한 시간 노동에 상응하는 정도의 팁은 100루피면 되겠구나~ 소결론. 그런데 그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 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매우 높다.

일단, 이 나라는 ‘외국인 요금 차별제’가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똑같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너네는 잘 살잖아”라는 논리로 외국인에게 두 세 배 더 많은 요금을 공식적으로 물린다. 대표적인 곳이 골프

장.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가 다르다. 주요 관광지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런 논리가 박시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쉽게 말해서 “너넨 잘 사니까 코란에 있는 대로 자비를 베풀어. 그럼 너네도 복 받고 우리도 좋잖아~”라는 논리가 나온다.

사례 1)

골프 캐디는 등급에 따라 공식 요금이 나뉜다. 18홀을 기준으로 C급 초보캐디는 650루피, B급 캐디는 700루피, A급 캐디는 900루피의 정규 요금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한국인 골퍼는 캐디 급에 상관없이 그냥 다 1,000루피를 서비스 요금으로 준

다. 그래서인지 골프장에 갈 때마다 만나는 현지 캐디들은 매번 자기를 개인 캐디로 고용해달라며 매달리다시피 한다. (몇 분의 캐디들과 호의로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골프 치러 언제 오냐고 하도 자주 물어봐서 이젠 연락처 교환 같은 거 안 한다.)

그런데 기분 좋게 골프를 마치고 가끔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다. “슈크리아(감사합니다)~” 하면서 캐디 비용으로 1,000루피를 건네도 물끄러미 쳐다본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 “다른 사람은 1,500루피도 주던데요?” 하면서 더 달란다. 심지어 그분은 B급 캐디였다. 기분 좋게 골프 잘 치고 갑자기 마음이 팍 상했다. 안 준 것도 아니고, 규정 금액보다 30



퍼센트를 더 얹어준 건데, 대놓고 규정 서비스 요금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다니. 이런 무례한데가. 기분이 상해서 동료들한테 이 얘길 했더니, “요구해보고 안 주면 말고”가 일반적인 이곳 문화니까 너무 열받아하지 말란다.

사례 2)

지인들과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한 중식당을 방문했다. 음식을 넉넉하게 시키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서빙 직원이 10분이 머다 하고 “Sir, Anything do you want?(손님, 뭐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하고 찾아온다. 한두 번은 서비스가 촌촌한 집이구

나 생각하다가 자꾸 대화가 끊기고 짜증이 난다. 우리 안 불렀는데? 하다가 아, 음식 다 나왔으니 팁 달라는 소리구나 알아듣고 100루피를 건넸다. 나는 밝은 표정의 “Thank you, Sir(감사합니다, 손님)” 대답을 기대했는데, 웨이터의 표정이 영~ 떨떠름하다. 아니 왜??? 100 루피면 이 나라 1시간 정규 급여인데 음식 몇 개 가져다주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냐? 아니란다. 기본적으로 음식이 비싼 집이고, 음식 가격의 10~15%를 받는 유럽 미국식 팁 문화를 충분히 알고 있는 직원들이라 음식 가격에 비례하는 팁을 기대한다는 것. 아니 그건 유럽 미국이지, 여긴 파키스탄이고 기본임금이란 게 있는데?



그런 거 없다. 많이 주면 장땡이다. 기본적으로 비싼음식=부자=부자는 당연히 베풀어야 할 의무. 이런 사상이 깔려있다.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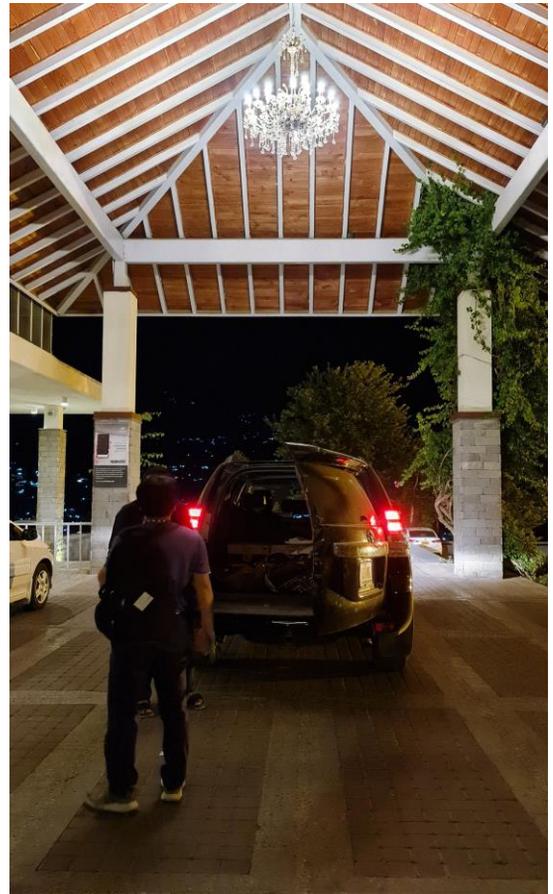
무자파라바드 4성 호텔에 갔을 때 일이다.

호텔에서 1박을 하고 체크아웃을 하고 차에 타려는데, 벨보이가 따라붙어 트렁크를 실어준다. 트렁크를 건네받고 차에 싣는 데까지 약 3분? 내 트렁크는 바퀴가 잘 굴러서 사실 힘도 하나도 안 든다. 그래도 호텔이니, 팁을 주는 게 예의지 싶어 50루피를 줬는데 역시 얼굴이 굳어지며 “Thank you, Sir(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온다. 나는 나름 계산이 있는 게, 알파타 카트 배달팁도 30루피면 되고, 푸드판다 음식 배달요금도 8~90 루피면 되는데, 3분의 노동가치가 50 루피면 충분히 쳐 준거라고 계산한 건데 이번에도 미스매치. 4성급 호텔에 올만한 손님이면 팁도 그 수준에 맞게 달라는 뜻인 듯. 아, 팁 주고도 무시당하네. 다음에는 아예 안 주던가 100 루피를 주던가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파키스탄은 비단 팁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상점이 경찰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어딜 가나 협상의 달인이 되어야 하는 법. 자국민도 이런 문화를 엄청 피곤해한다. 상대가 외국인이면 협상 제시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며(적정가의 열 배~), 상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너네는 부자니까 많이 내~). 전통시장 등에 갈 때는 현지인을

같이 대동해서 바가지 안 당하는 게 좋겠다. 나 같은 경우는 듄직한 우리 현지인 운전기사님이 그 역할을 잘해 주신다.(심지어 덩치도 산만 하다)

언젠가 지인 중 한 분이 이런 얘길 해 주셨다. 골프 가방에 지갑을 넣어놓고 라운딩을 돌고 지갑을 도로 꺼냈는데, 믿었던 캐디가 지갑을 열고 3,000 루피를 가져갔다고. 돈이 많았는데, 고맙게도 다 가져가진 않고 일부만 꺼내고 도로 넣어놨더라고. 기본적으로 “나는 돈을 가져가서 좋고, 당신은 나에게



적선 기부한 만큼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당신도 좋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가져갔을거다. 별로 미안한 마음이 없었을거다. 지갑째 가져가거나 돈을 다 가져가면 코란에서 금하는 절도가 되는 거니까 그건 종교 교리 때문에 못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스토리. 들으면 묘하게 이해가 되려고 하면서도 아니 이게 무슨 논리야 이해가 되다 말다 혼란하다.



사실, 여전히 서비스에 팁을 건네는 문화는 한국인에게 낯설다. 그리고 그건 어린 시절 어렵게 자랐고 지금도 알뜰살뜰 자린고비인 나에게 한층 더 어렵다. 그런데 내가 이 나라 살면서 팁 줄 상황이 앞으로 뭐 얼마나 생기겠나. 국위 선양하며 한국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걱정하고 팁은 좀 넉넉하게 줘야겠다 마음먹어본다. 혹시 아나, 알라신이 기부 많이 했다고 복을 담뱃 담아주실지.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